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생활

- 60세이상을 중심으로 -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 생활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게 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에서는 15세 이상 서울시민 전체 및 현재 노후생활로 접어든 6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 유형,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희망하는 활동, 가구유형 등의 변화를 통계로 작성하였으며,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서울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주로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표하고 있는 서울서베이(2003~2013년) 및 통계청 사회조사(2005~2013년), 인구주택총조사(2000~2010년), 장래가구추계(2013~2030년) 등임.

목 차

[요 약]	1
1.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유형	2
2. 60세 이상이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	4
3. 노후생계에 대한 부양가치관 변화	5
4. 노후에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6
5.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7
6. 적정 은퇴시기 및 노후 희망소득	8
7.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유형	9

자료설명 및 유의사항

○ 2013 서울서베이(서울시)

- 작성목적 :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시정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작성방법 :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약 47,384명(표본가구는 2만 가구)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만60세이상 조사대상은 8,298명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10. 20. ~ 2013. 11. 25/ 조사주기 1년(매년)

○ 2013 사회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만13세 이상 서울시민 약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조사결과에 따라 연령층이 다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5. 11. ~ 5. 26.(16일)/ 조사주기 : 1년(매년)

○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통계청)

- 조사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조사기간 : 2010. 10. 22. ~11. 15. (25일간), 조사기준 시점 : 2010. 11. 1.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 본문 2000년, 2005년,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일반가구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 2010~2035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질적 변화정보는 각종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하는데 유용, 최근 가족 분화 및 해체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의 규모나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장래가구 추계가 필요
- 활용자료 : ① 기준가구 작성, 장래가구추출 및 가구구성비 추정 : 199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② 장래 가구추계 대상인구 추계 : 2011 장래인구추계(2010~2060)
③ 장래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 인구동태자료 및 생명표(1990~2010)
- 작성대상기간/시점 : 2010~2035년(25년간 : 매년 7월1일 기준)
- ※ 본문의 2013년^e, 2020년^e, 2030년^e 가구통계는 장래가구추계 결과 활용, e는 추정치임.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 합이 상위분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I . 요약

●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유형)

- ▶ 60세이상 노후에 가장 희망하는 동거유형은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따로>노인전용공간>자녀와 함께’ 순
- ▶ 이중 “노인전용 공간” 선호도 증가 : 2003년 13.7% → 2013년 30.3%
- ▶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따로 : 2003년 50.5% → 2013년 44.2%, 자녀와 동거 : 2003년 33.4% → 2013년 21.2%는 감소

● (60세 이상이 자녀와 함께사는 이유)

- ▶ 2013년 현재 60세이상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는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 39.7%, 손자녀 양육 자녀 가사 지원 6.8%
60세이상 본인 독립생활 불가능으로 같이 사는 이유는 30.6%, 같이 살고 싶어서는 16.5%
- ▶ 60세이상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독립생활이 가능해서, 자녀에게 부담될까봐 등

● (노후생계에 대한 부양가치관 변화)

- ▶ 자녀에 노후 기대 안해, 60세이상 중 자녀가 내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이라는 응답은 11.3%에 불과
- ▶ 노부모 부양 가치관이 과거에는 자녀 전적책임에서 이제는 자녀 및 정부사회 공동책임으로 바뀜

● (노후에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 ▶ 60세 이상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 희망 : 2005년 76.9%→2013년 94.3%
- ▶ 가장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이지만, 이는 ‘05년 46.8% → ‘13년 32.5%로 감소하는 반면, 최근 간병(13.8%→22.8%) 및 가사서비스(6.1%→14.4%)와 같은 실생활에 도움되는 복지서비스 희망 증가

●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분야)

- ▶ 60세 이상은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중 취미(교양)활동 83.4%, 소득창출 활동 73.8%로 희망률 높음
- ▶ 60세 이상은 황혼육아(손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71.8%가 희망하지 않거나(34.7%), 그저 그렇다(37.1%)로 답변

● (60세 이상 걱정 은퇴시기 및 노후 희망소득)

- ▶ 60세 이상이 희망하는 걱정은퇴 시기로는 65~69세가 39.2%로 가장 많고, 70세이상이라는 응답도 27.1%나 됨.
- ▶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으로는 100만원이상에서 200만원미만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음

● (60세 이상 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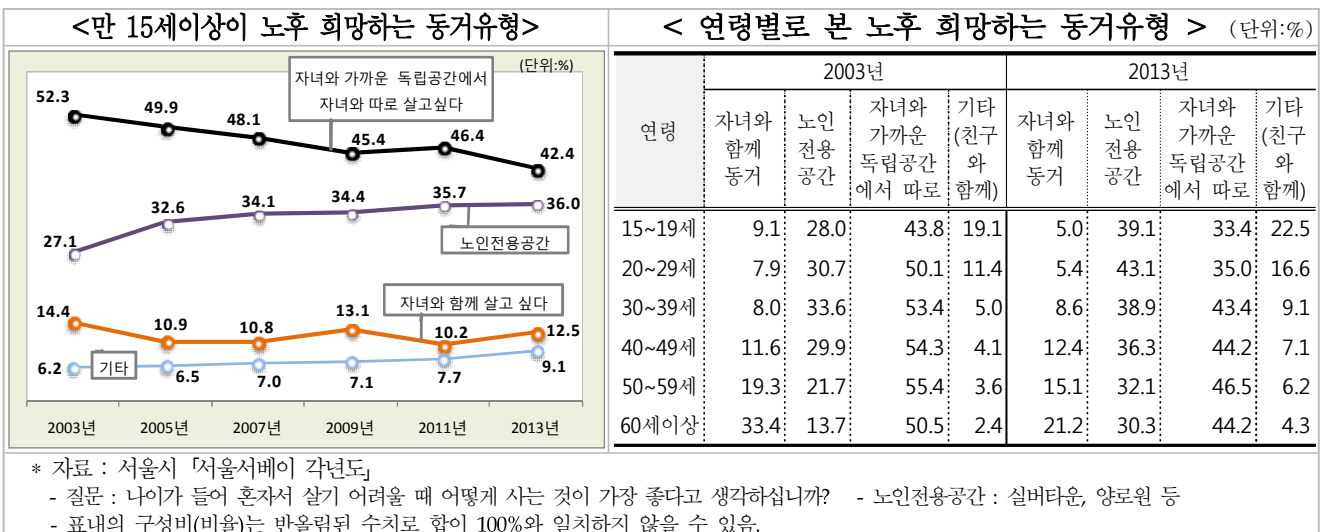
- ▶ 60세 이상 가구주는 2000년 46만9천가구에서 2013년 89만2천가구로 13년 동안 1.9배 증가, 이 중 1인 가구 2.4배, 부부가구 2.2배 각각 증가하였으며, 부모(한부모도 포함)+미혼자녀 가구도 1.6배 증가함.
- ▶ 가구주 연령이 60세이상인 가구 중 나홀로 살거나 자녀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절반 차지(50.2%)
- ▶ 전체 일반가구 중 60세이상 2000년 15.2% → 2013년 25.0%로 증가, 2030년에는 44.4%로 지속 증가 전망

1.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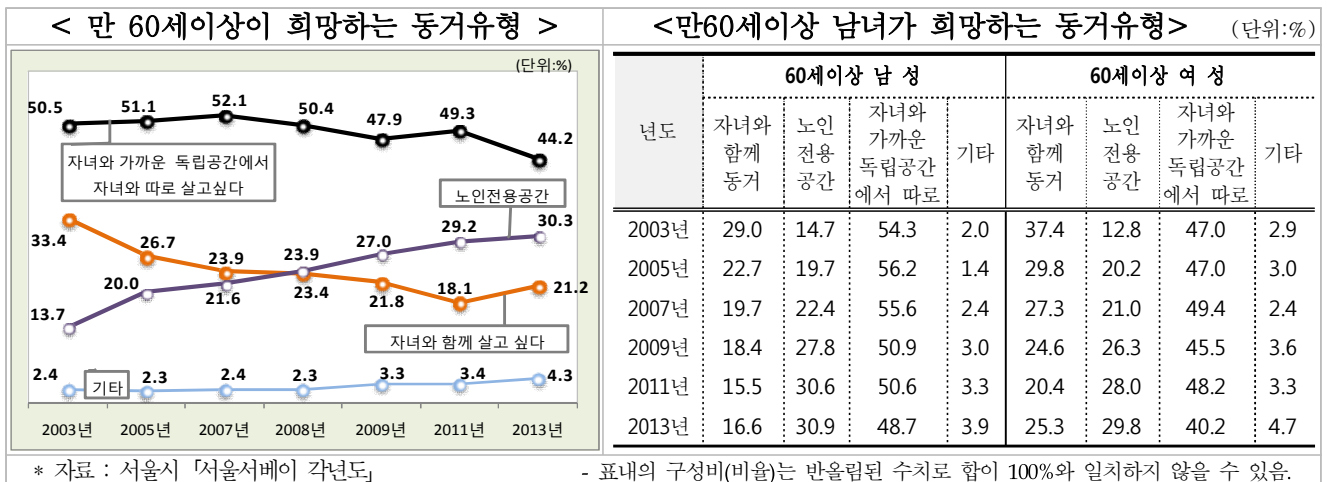
60세 이상 노후에 가장 희망하는 동거유형은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따로 노인전용공간>자녀와 함께 순

- ▶ 이종 노인전용공간에서 살고 싶다 증가 : 2003년 13.7% → 2013년 30.3%
- ▶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감소 : 2003년 50.5% → 2013년 44.2%
- ▶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감소 : 2003년 33.4% → 2013년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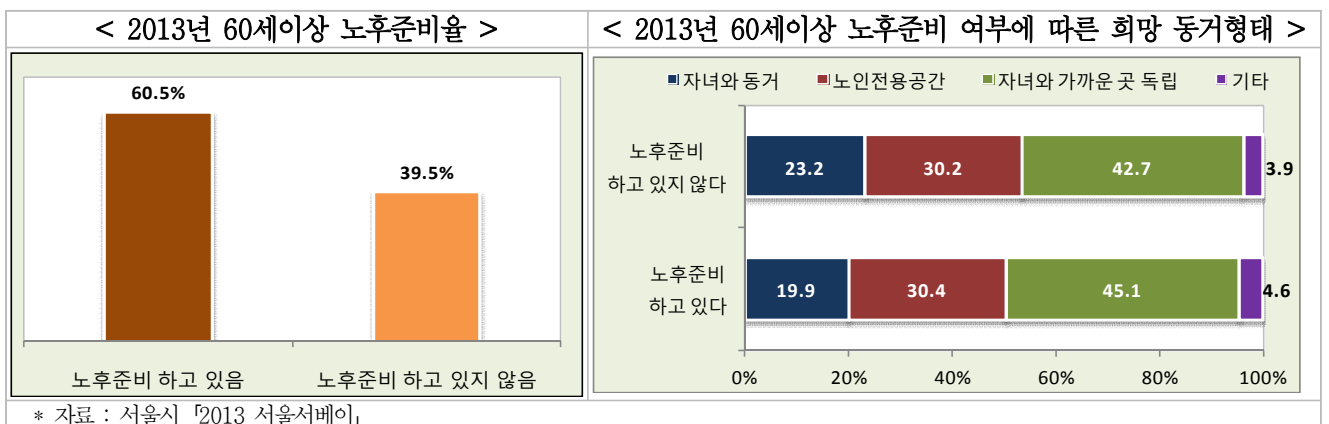
- 기대수명의 증가(2000년 78.8세→2011년 82.7세)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희망하는 노후생활 유형도 점차 변화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서울시민 10명 중 9명 정도, 또한 60세 이상은 10명 중 8명이 노후에 혼자살기 힘들어도 자녀와 함께 살 생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형태에서 노인전용공간 선호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먼저 15세이상 전체 서울시민들은 2013년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가장 선호하는 동거유형으로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살고 싶다'가 42.4%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전용공간 36.0%,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12.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지난 10년간(2003~2013년)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3년부터 2013년 최근 까지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견해는 10%~15%에 불과하였으며,
- 가장 선호하는 동거형태인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에서 따로 살고 싶다'는 견해는 2003년 52.3%에서 2013년 42.4%로 줄어든 반면, 노인전용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7.1%에서 36.0%로 증가하였음.
-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는 노인전용공간을 가장 선호하고, 30대 이후는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에서 따로 살고 싶다'가 가장 높지만, 노인전용공간 선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60세이상 연령층이 희망하는 동거유형으로는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에서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가 44.2%로 가장 높고, 노인전용공간 30.3%, ‘자녀와 함께 살고싶다’ 2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2003~2013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견해는 2003년 33.4%에서 2012년 18.1%로 줄었다가 2013년 21.2%로 약간 높아졌으나 10년 전(2003년)보다는 12.2%p 낮아진 수치이며, 가장 선호하는 동거형태인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에서 따로 살고 싶다’는 견해는 2003년 50.5%에서 2013년 44.2%로 줄었음.
- 반면, 노인전용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견해는 2003년 13.7%에서 2013년 30.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에는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자녀와 동거>노인전용공간’ 순이었으나 2008년부터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노인전용공간>자녀와 동거’ 순으로 변화되었음.
- 또한 60세이상 중 ‘노후에 자녀와 살고 싶다’는 생각은 여성(25.3%)이 남성(16.6%)보다 높았음.



- 2013년 60세이상 중 39.5%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60세 이상도 혼자살기 어려울 때 희망하는 동거유형으로 노인 전용공간(30.2%)거주가 자녀와 동거(23.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60세 이상이 자녀와 함께사는 이유

2013년 60세 이상이 현재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는 부양받기 위해서보다는 자녀 부양을 위해서가 더 높음

- ▶ 같이사는 이유 중 자녀부양 때문 46.5% :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 39.7%, 손자녀 양육 등 6.8%
- ▶ 본인의 독립생활 불가능으로 자녀와 함께 산다는 30.6%, 같이 살고 싶어서는 16.5%

60세 이상이 자녀와 따로사는 이유는 따로사는 것이 편해서, 독립생활가능해서, 자녀에게 부담될까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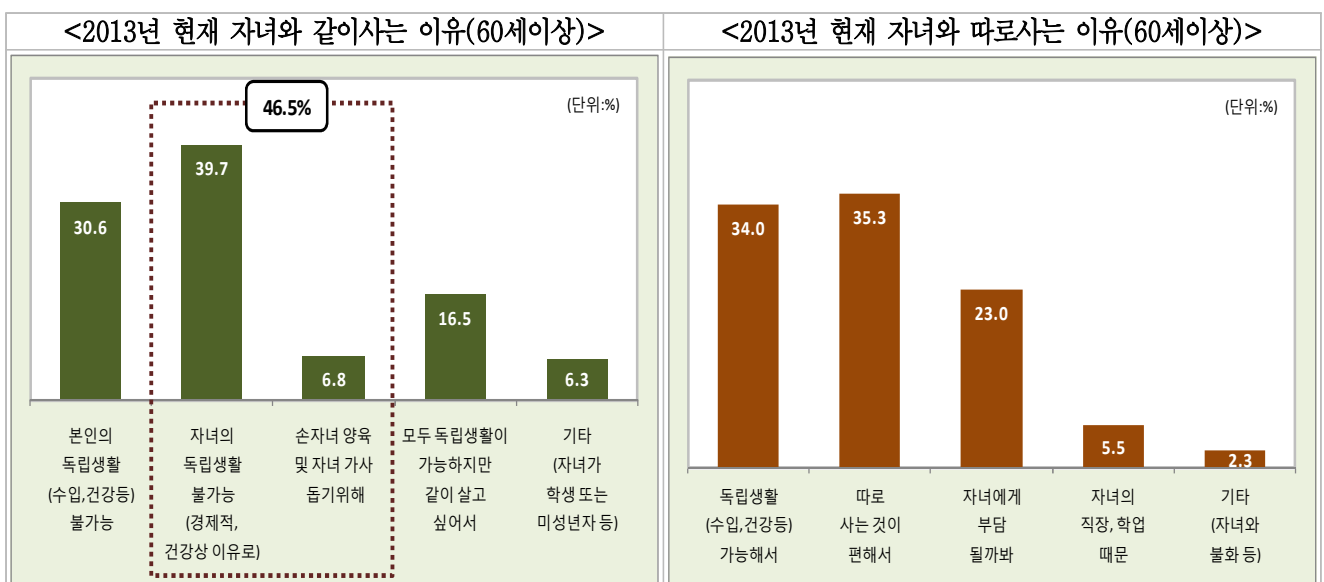
□ 2013년 60세이상 중 45.2%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4.8%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60세 이상이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는 부양을 받기 위해서보다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통계로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60세이상 중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 손자녀 양육 및 자녀 가사지원을 위해서 6.8%까지 포함하면 60세 이상이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 중 46.5%가 자녀 부양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외 수입·건강상의 문제로 부모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은 30.6%, 모두의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16.5% 등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13년 60세 이상이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이유로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35.3%, 독립생활이 가능해서 34.0%, 자녀에게 부담될까봐 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60세 이상이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라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이유와 같이 사는 이유에 응답함.
- 막대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노후생계에 대한 부양가치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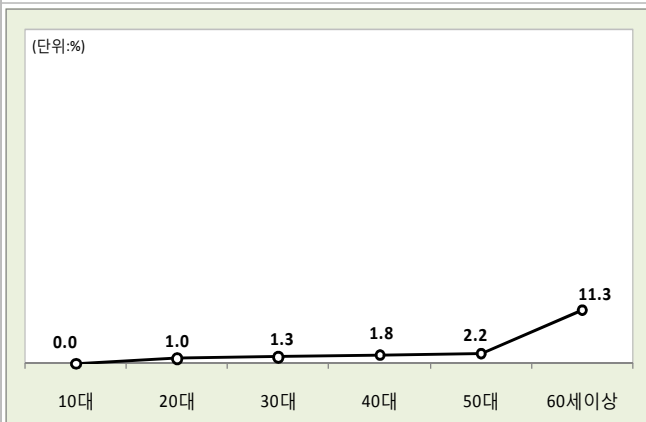
2013년 60세이상 중 11.3%만이 자녀가 내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노부모 부양 가치관 변화 : 자녀 전적 책임에서 자녀 및 정부사회 공동 책임으로 바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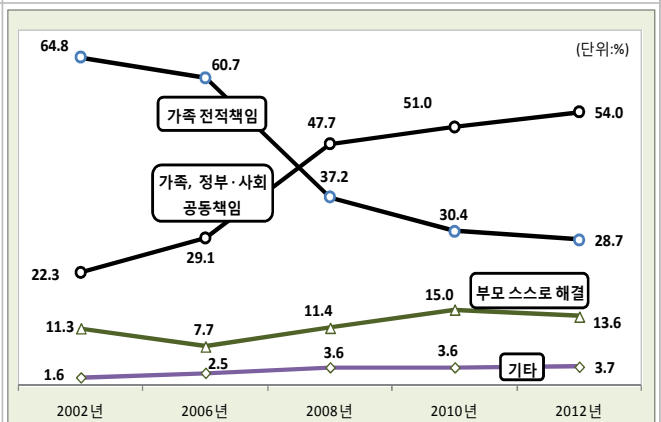
- ▶ 부모 노후생계 가족(자녀) 전적 책임이다 감소 : 2002년 64.8% → 2012년 28.7%
- ▶ 가족(자녀) 및 정부사회 공동 책임이다 증가 : 2002년 22.3% → 2012년 54.0%

- 서울시민들은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 견해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들 중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지에 대해 50대 이하 연령층은 0~2.2% 이내로 응답하였으며, 60세 이상은 10명 중 1명 정도는 내 노후를 자녀가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만15세 이상 서울시민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가족(자녀) 책임에서 가족 및 정부·사회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로 변화되고 있음.
- 만1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자녀가 부모의 노후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2년 64.8%에서 2012년 28.7%로 감소한 반면,
- 부모의 노후생계는 가족(자녀) 및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는 2002년 22.3%에서 2012년 54.0%로 증가하였으며, 부모 스스로 해결도 2006년 7.7%에서 2012년 13.6%로 증가하였음.

<2013년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이라고 여기는 연령별 응답 비율>



< 만 15세이상 중 노부모 부양견해 추이 >



*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 질문 :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이라고 여기는 응답비율

- 부양견해(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5세이상 응답) 여기서, 가족은 자녀(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또는 사위)를 말함.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4. 노후에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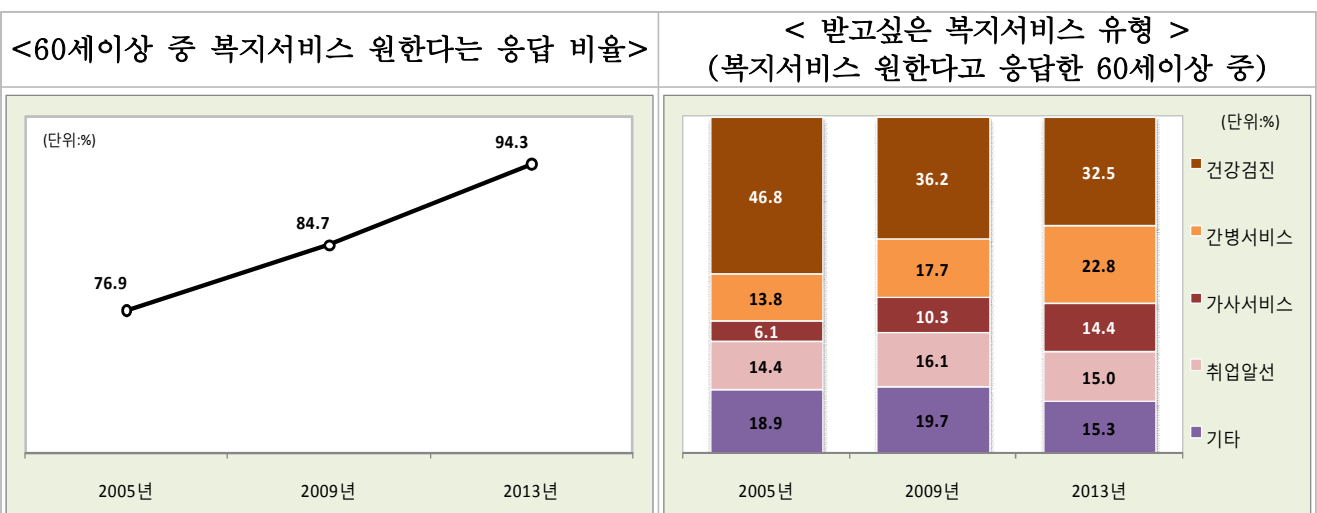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 희망 : 2005년 76.9% → 2013년 94.3%

가장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이지만, 최근 간병 및 가사서비스 희망 증가

▶ 건강검진 감소 : 2005년 46.8% → 2013년 32.5%

▶ 간병·가사서비스 증가 : 간병 2005년 13.8% → 2013년 22.8% / 가사 2005년 6.1% → 2013년 14.4%

- 서울시민들은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는 비율은 줄고,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원한다는 생각은 증가하고 있으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유형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중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76.9%에서 2013년 94.3%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들이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가장 받고 싶다고 응답한 복지서비스로는 여전히 건강검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간병 및 가사 서비스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60세 이상 서울시민들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검진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병서비스 22.8%, 취업알선 15.0%, 가사서비스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5년과 비교하면, 건강검진 복지서비스 선호율은 2005년 46.8%에서 2013년 32.5%로 감소한 반면, 간병서비스는 2005년 13.8%에서 2013년 22.8%로 증가, 가사서비스는 2005년 6.1%에서 2013년 14.4%로 증가하였음.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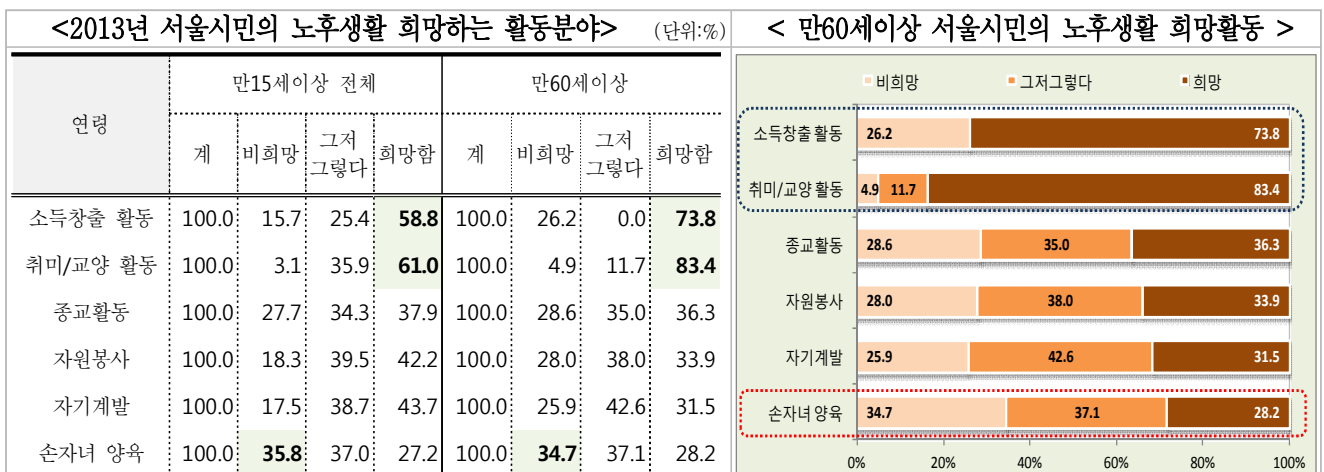
- 질문 :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5.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60세 이상 “취미(교양활동)” 83.4% 희망, “소득창출 활동” 73.8% 희망

60세 이상 “황혼육아(손자녀 양육)” 71.8%가 희망하지 않거나(34.7%), 그저 그렇다(37.1%) 답변

- 2013년 서울시민은 6개 활동분야(소득창출 활동, 취미 및 교양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자기계발, 손자녀 양육)에 대한 노후활동으로 희망정도를 묻은 결과 취미(교양)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의 선호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손자녀 양육(황혼 육아)에 대해서는 희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만 15세이상은 노후활동 중 취미(교양)활동을 희망한다는 61.0%, 소득창출 희망 58.8%로 다른 활동보다 희망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다른 활동인 자기계발, 자원봉사, 종교활동도 취미(교양)활동과 소득창출 활동보다는 희망한다는 응답이 다소 낮지만 비희망률보다는 높았음.
 - 반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황혼육아만은 비희망률(35.8%)이 희망률(27.2%)보다 높았음.
- 또한 만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취미(교양)활동과 소득창출활동은 희망율이 높게 나타났고, 손자녀 양육 희망율은 낮게 나타남.
 - 60세이상이 취미(교양)활동을 노후에 희망한다는 응답은 83.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소득창출도 73.8%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손자녀 양육활동은 비희망 34.7%, 그저 그렇다가 37.1%, 희망 28.2%로 답변해 6개 활동 중 유일하게 비희망이 희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처럼 황혼육아는 60세 이상이 가장 하고싶지 않은 노후활동으로 나타남.



*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 질문 : 각 항목별(소득창출활동, 취미/교양 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자기계발, 손자녀양육)로 노후에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함.
 비희망(아마 안할것이다+절대하지 않겠다), 희망(아마 할 것 같다+반드시 하겠다)로 정리함.
 - 표(막대)내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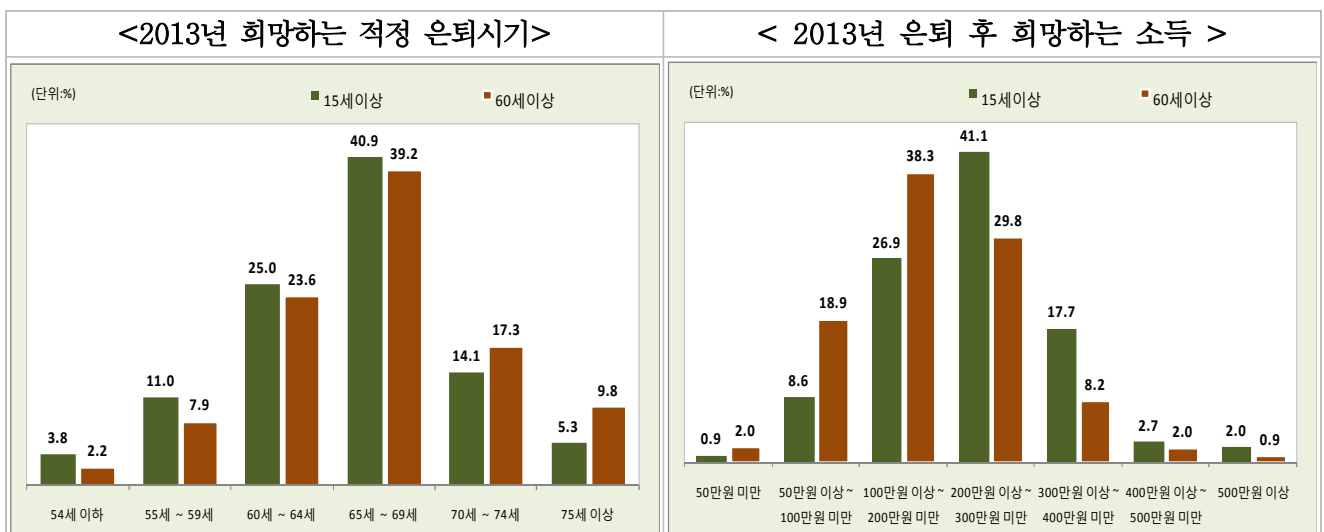
6. 적정 은퇴시기 및 노후 희망소득

60세 이상이 희망하는 적정 은퇴 시기로는 65~69세가 39.2%로 가장 많았음.

▶ 적정 은퇴시기를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도 27.1%나 되었음.

60세 이상이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으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8.3%로 가장 많음

- 2013년 현재 만60세 이상과 만15세 이상 서울시민은 가장 적정하게 생각하는 은퇴시기가 70세 이상은 되어 한다는 생각은 60세 이상이 더 높았으며,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만60세 이상보다 만15세 이상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2013년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시기로는 65~69세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15세 이상과 만60세 이상이 같은 연령대로 응답함.
 - 반면, 적정 은퇴시기가 7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만60세 이상이 27.1%로 만15세 이상 응답 19.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13년 서울시민에게 은퇴 후 희망 월평균 소득에 대해 만15세 이상은 200 ~ 300만원(이상~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만60세 이상은 100 ~ 200만원(이상~미만)이 가장 많았음.
 - 만15세 이상은 200 ~ 300만원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100 ~ 200만원 26.9%, 300 ~ 400만원 17.7% 순으로 나타남.
 - 만60세 이상은 100 ~ 200만원 38.3%로 가장 높았으며, 200 ~ 300만원 29.8%, 50 ~ 100만원 18.9% 순으로 나타남.



*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 적정 은퇴시기 : 귀하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은퇴시기는 언제입니까?
- 은퇴 후 희망소득 : 은퇴 후 월 소득으로 얼마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막대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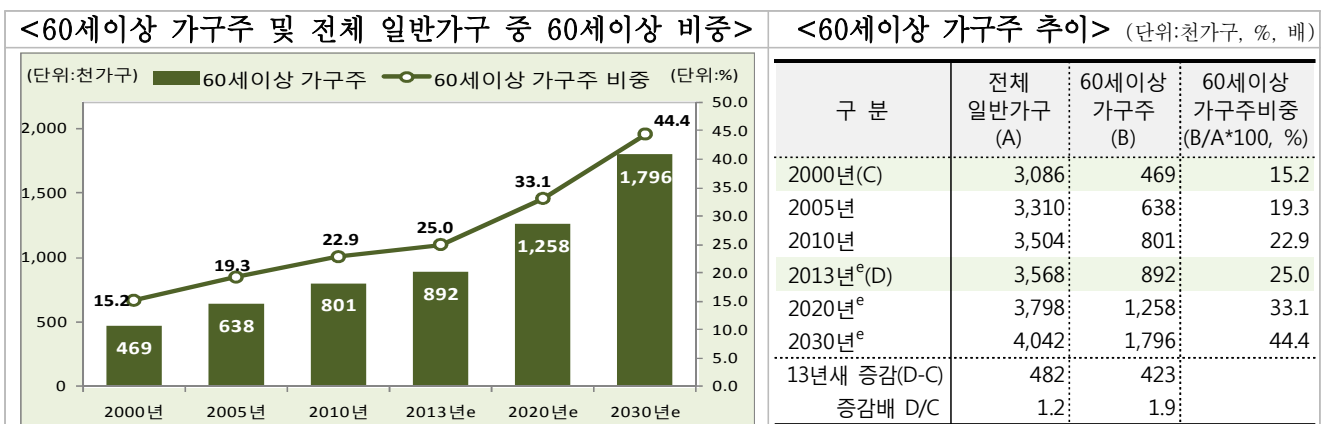
60세이상 가구주 2000년 469천가구에서 2013년 892천가구로 13년 새 1.9배 증가

▶ 60세이상 가구주 중 1인가구 2.4배 ↑, 부부가구 2.2배 ↑, 부모부 또는 모+미혼자녀 가구 1.6배 ↑

2013년 60세이상 가구 중 나홀로 사는 가구 및 자녀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절반 차지(50.2%)

▶ 60세이상 가구유형은 부모부 또는 모+미혼자녀 가구 30.8%, 부부가구 26.5%, 1인가구 23.7% 순
 전체 일반가구 중 60세이상 비중 : 2000년 15.2% → 2013년 25.0%, 2030년^e에는 44.4%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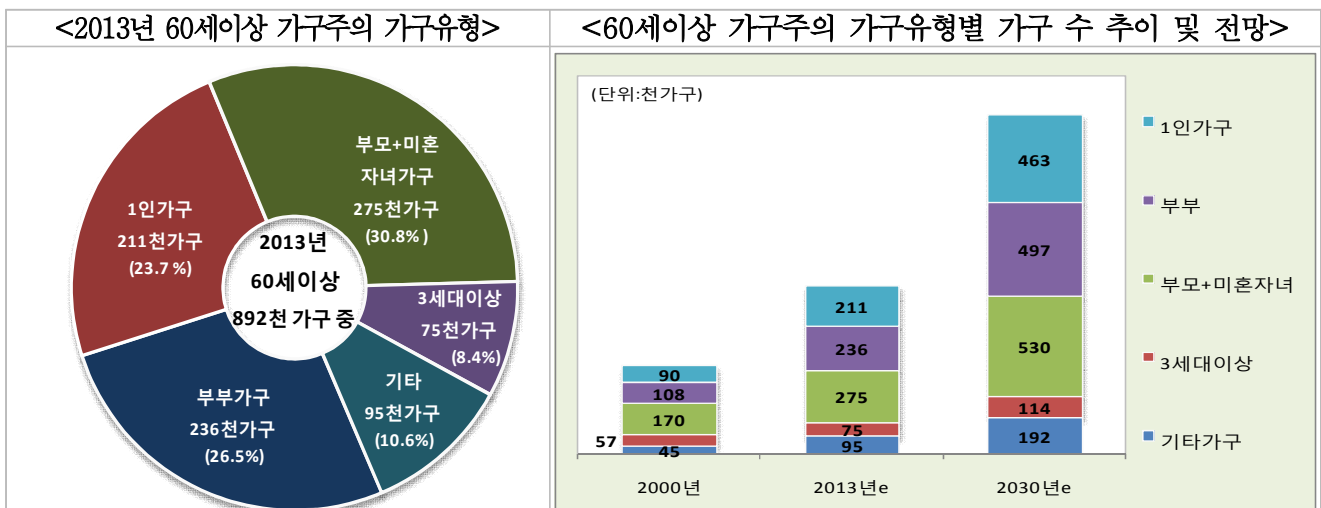
- 기대수명 연장, 생활 및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독립주거가 가능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자녀와의 동거의향 및 부양가치관 변화, 자녀의 독립지연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구유형에서 60세이상 고령가구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60세이상인 가구는 2000년 46만9천가구에서 2013년 89만2천가구로 13년새 1.9배(423천가구)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일반가구 증가율(1.2배 : 3,086천가구→3,568천가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60세 이상 가구주가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2000년 15.2%에서 2013년 25.0%로 증가하여 현재 서울 일반가구 4가구 중 1가구가 60세 이상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에도 60세 이상 가구주는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e에는 179만6천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4%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0~2010년)」, 「장래가구추계(2013~203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 : 추정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로 주민등록상 세대와는 차이가 있음.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로 총 가구에서 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것임.
 - 표내의 증감(률)이나 구성비는 원 자료에서 산출하였으므로 천단위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이처럼 60세이상 가구주는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부 또는 모)+미혼자녀 가구'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세이상 1인가구 및 노부부 가구 증가율은 60세이상 가구주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현재 60세이상 가구(89만2천가구)의 세대구성별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부모(부 또는 모)+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275천가구(30.8%), 자녀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236천가구(26.5%), 1인 가구 211천가구(23.7%) 등의 순이며, 60세이상 가구 중 절반 정도인 50.2%는 노부부만 살거나 홀로 살고 있음.
- 이 중 1인 가구는 2000년 9만가구에서 2013년 21만1천가구로 13년동안 2.4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 2030년^e에는 46만3천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60세이상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2030년^e에는 전체 1인 가구(1,217천가구) 중 60세이상 1인가구(463천가구)가 38.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자녀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2000년 10만8천가구에서 2013년 23만6천가구로 13년 새 2.2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 2030년^e에는 49만7천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
- 뿐만 아니라 늦은 결혼 및 자녀 독립지연 등으로 60세 이상 가구주 부모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도 2000년 17만 가구에서 2013년 27만5천가구로 1.6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 2030년^e에는 53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구 분	전체 일반가구의 가구유형별 가구 수 (천가구)						가구주 연령 60세이상 가구의 가구유형별 분포												
	전체	부부	부모(부 또는 모)+미혼자녀	1인 가구	3세대 이상	기타 가구	가구 수(천가구)					가구유형별 구성비(%)							
							계	부부	부모(부 또는 모)+미혼자녀	1인 가구	3세대 이상	기타 가구	계	부부	부모(부 또는 모)+미혼자녀	1인 가구	3세대 이상	기타 가구	
2000년(A)	3,086	287	1,806	502	228	263	469	108	170	90	57	45	100.0	22.9	36.2	19.2	12.2	9.5	
2005년	3,310	365	1,760	676	213	296	638	157	221	127	72	60	100.0	24.7	34.6	20.0	11.4	9.4	
2010년	3,504	423	1,680	855	211	336	801	208	254	183	72	84	100.0	26.0	31.7	22.8	9.0	10.5	
2013년 ^e (B)	3,568	461	1,621	932	201	353	892	236	275	211	75	95	100.0	26.5	30.8	23.7	8.4	10.6	
2020년 ^e	3,798	562	1,553	1,096	190	397	1,258	334	388	311	90	135	100.0	26.5	30.8	24.7	7.2	10.7	
2030년 ^e	4,042	725	1,480	1,217	184	436	1,796	497	530	463	114	192	100.0	27.7	29.5	25.8	6.3	10.7	
13년 새	증감(B-A)	482	174	-185	430	-27	90	423	128	105	121	18	50						
	B/A(배)	1.2	1.6	0.9	1.9	0.9	1.3	1.9	2.2	1.6	2.4	1.3	2.1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0~2010년) , 장래가구추계(2013~2030년)」 , 국가통계포털(KOSIS) e : 추정치
 - 3세대이상 가구 : 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부부+자녀+손자녀+부모, 부부+자녀+부모+조부모 등
 - 기타가구 : 부부가구를 제외한 1세대 기타, 부부+미혼자녀가구를 제외한 2세대 기타,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 비혈연가구 등임.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된 수치로 표제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감(률)이나 구성비는 원 자료에서 산출하였으므로 천단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